



‘세월오월’ 논란 속에 지난 9월5일 개막한 2014광주비엔날레가 오는 9일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사진은 코넬리아 파커 작 ‘어둠의 심장’. <광주비엔날레재단 제공>

2014 광주비엔날레 결산

‘터전을 불태우라’를 주제로 지난 9월5일 닷을 올린 2014광주비엔날레가 오는 9일 66일간의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는다. 특히 올해는 광주비엔날레가 20주년이 되는 해여서 어느 때보다 국내·외의 이목이 집중됐다.

하지만 개막전인 지난 8월 ‘20주년 잔칫상’으로 기획된 20주년 기념 특별전시에서 일어난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홍성담 작가의 작품 ‘세월오월 논란’으로 광주비엔날레는 어느 때보다 빨리 타올랐고, 또 금세 사그라졌다. 전시보다는 ‘논란’에 이목이 쏠렸고, 시민들의 관심에서도 점차 멀어졌다. 그만큼 아쉬움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다.

◇무개감 있는 전시 돋보여=2014광주비엔날레의 주제는 1980년 대 미국의 록그룹 토킹 헤즈의 노래 ‘Burning Down the House’다. 특히 국문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집(House)’을 ‘터전’이라는 단어로 해석해 신선한 충격을 던졌다. 광주비엔날레가 20년간 쌓아왔던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그것들을 토대로 새로운 것을 찾겠다는 의지가 엿보이기도 했다.

주제만큼 제시가 모건 송감독의 작가 구성도 돋보였다. 90% 이상 작가들이 광주비엔날레에 처음 참여하는 작가들로, 세계 미술계의 신선한 작가들을 한국에 소개하는 역할을 했다.

전체적인 전시 구성에서도 20주년이 보여주는 안정감을 찾을 수 있었다는 평가도 있었다. 주제가 지닌 체제에 저항하는 혁신성과 실험성을 구현하기 위해 작

# ‘세월오월’ 논란에 뜨거워 관심 일찍 불타올라 금세 사그라져

작품의 수준 높고 전시 구성에도 안정감 NYT 등에서 호평 관람객 해마다 감소 일반 관람객에 어필할 통로 부족 반성해야

가들이 세계의 다양한 문제들을 녹여낸 작품을 통해 광주비엔날레의 모태가 된 ‘광주정신’을 은유적으로 해석한 작품들이 눈에 띄었다는 호평도 이어졌다. 논란 속에 결국은 전시되지 못했던 ‘세월오월’보다 더 강한 정치적 메시지를 던진 작품도 많았다.

“광주비엔날레가 세계 비엔날레 현장에서 꼭 들려야 할 중요한 정착지가 됐다”라는 뉴욕타임스의 평가, “첫 관람 때

다 두 번째 관람 때 더 많은 시간이 들었다”라는 관람객들의 평가도 있었다.

반면 국내 평론가들의 반응은 전시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미술평론가 정준모 씨는 “전시가 러프하고, 기승전결이 없어 불안 집과 같이 어수선한 느낌을 안겨줬다”고 혹평했고, 반이정씨는 “구성 자체가 방만해 여러 주제를 모두 받아들이기 힘들었다”고 평가했다.

◇관심에서 멀어지는 행사=관람객 숫자가 전시의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는 아니지만 관람객이 없는 행사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

지난 4일까지 61일 동안 2014광주비엔날레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은 17만1744명(유료 관람객 14만3457명, 무료 2만8287명)으로 남은 5일 동안 목표 관람객(25만 명) 달성은 힘들어 보인다. 실제 2010년 제8회광주비엔날레에는 모두 32만7981명, 2012년 제9회광주비엔날레에는 22만8428명이 66일 동안 전시장을 찾은 등 광주비엔날레 관람객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재단 측은 관람객 감소 이유를 ‘세월호 참사로 일선 학교의 단체 관람 감소’ ‘관행적으로 있었던 시 예매 입장권 판매 감

소’ ‘세월호 사태로 시민들의 관심 감소’ 등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스무살이나 된 광주비엔날레가 언제까지 10~20분 만에 전체 전시를 관람하는 유치원생과 초등·중학생, 그리고 광주시의 표 구매에 의존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목표 설정을 보다 현실적으로 하고, 실제 관람객들이 전시장에 더 오래 머물면서 광주비엔날레를 한번 더 생각할 수 있는 대책들이 필요하다.

그동안 광주비엔날레가 기획자, 미술인, 해외 언론 등에게는 많은 호평 받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정작 그들의 눈에 비친 새로운 무엇들을 일반 관람객들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전달하는 통로가 부족했던 점은 반성해야 한다.

해마다 해외 각국의 후원금이 다소나마 증가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측면이다. 올해 해외 전시 후원금은 모두 2억5200여만 원으로 지난 2006년(1억3400만 원), 2008년(1억4800만 원), 2010년(1억9300만 원) 보다 늘었다. 하지만 부산국제영화제의 스폰서 비용이 30~35억원(국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아쉬움이 크게 남는 대목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죽은 아이를 기리는 노래’

실내악 그룹 ‘캄머무지칸트’ 내일 광주국제교류센터서 공연

독일 시인 프리드리히 뤼케르트는 세상을 떠난 두 아이를 추모하는 시 443편을 썼다. 그와 친분이 있었던 작곡가 말러는 ‘태양’, ‘빛’, ‘별’ 등의 시구가 들어 있는 시를 골라 작품을 만들었다.

이 곡이 ‘대지의 노래’ 등과 함께 그의 대표 연가곡으로 불리는 ‘죽은 아이를 기리는 노래’다. 이 노래를 작곡할 때만 해도 그는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이 곡이 연주되기 시작하고 3년 후 그 역시 딸 안나를 잃는 슬픔을 겪게 된다.

실내악 그룹 ‘캄머무지칸트’가 ‘죽은 아이를 기리는 노래’ 공연을 갖는다. 7일 오후 7시30분 광주국제교류센터 1층 홀.

이번 공연에서는 ‘이제 태양은 매우 밝게 떠오르리’, ‘이제 난 잘 아네, 왜 그렇게 어두운 불꽃아...’ 등 ‘죽은 아이를 위한 노래’ 5곡을 들려준다. 또 슈베르



박계 송미나

트의 ‘아베 마리아’, 장일남 곡 ‘비목’, 최병철 곡 ‘초혼’ 등도 들려준다. 바리톤 김진모, 소프라노 서영선·박계·송미나 씨 출연하며 최유진씨가 반주를 맡았다. 실내 음악가를 뜻하는 캄머무지칸트는 지난해 창단했으며 독일 음악을 중심으로 소규모 실내악음악을 추구하는 그룹이다. 문의 010-3629-664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광주일백년 2’ 개정증보판 나왔다

‘광주일백년 2’(전3권·저자 박선홍) 개정증보판이 20년 만에 다시 나왔다.

이번 발간은 지난 2012년 박선홍 선생이 광주문화재단에 도서 ‘광주일백년’이 광주문화재단에 도서 ‘광주일백년(전3권, 1994년)’시리즈와 ‘무등산(1998년)’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기증한 데 따른 후속작업으로 이뤄졌다.

‘광주일백년’은 개화기 이후부터 현재까지 광주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따뜻하고 짙게 스토리텔링한 광주역

사의 기록본으로 지난 2012년 광주문화재단이 ‘광주일백년 1’개정증보판을 발간했다. ‘광주일백년 2’ 개정증보판은 기존 ‘광주일백년 1’초판(1994년)에 있던 ‘금융’과 ‘통신’ 부분을 담아 총 6장 320쪽으로 구성됐다.

출판 기념회는 오는 7일 오전 11시 빛고을시민문화관 4층 다목적실에서 열린다. 문의 062-670-7425.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문화전당 운영 전문인력 양성한다

추진단, 4개 분야 시범사업

지원된다. 원서 접수는 7일까지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과 아시아문화개발원은 2015년 개관을 앞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전당)에서 활동 가능한 역량 있는 인재를 발굴하고, 국제적 수준의 아카데미 프로그램 개설 준비를 위해 ‘전당운영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록연구사(아카이비스트)’, ‘소장품관리원(레지스트라)’, ‘문화교육가(에듀케이터)’, ‘무대기술인력’ 등 총 4개 분야에 걸쳐 시행된다.

기록연구사 양성 프로그램은 12월 8~17일 진행되며, 이론교육은 광주시에서 하고 현장실습은 국가기록원, 국립현대미술관 등 국내 다양한 기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대상은 기록학, 문화정보학 관련 전공자 또는 아카이브 관련 업무 경험 보유자다. 모집 인원은 10명 내외로 수강생들에게는 교육 기간 동안 경비가

무대기술인력 양성 프로그램은 내년 1월5일부터 2월16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등 광주시 일대에서 진행되며 무대장치, 조명, 음향 등 3개 분야 교육으로 나뉜다. 원서 접수는 10일부터 12월7일까지다.

문화교육가(에듀케이터) 양성 프로그램은 내년 1월 개설을 목표로 세부 일정과 내용을 협의 중이며, 오는 11~12월 중 모집 공고를 할 예정이다. 문의 062-234-0384.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아이디어 이 피었습니다!

### ●홍보지 및 판촉물

●전단지

●현수막

●상패

●상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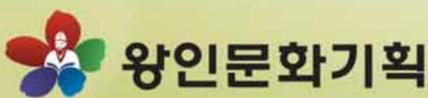
●전단지

●각종 인쇄물

●현수막

●각종 인쇄물

●홍보지 및 판촉물



Tel. (061)471-1717~1718  
Fax. (061)471-1719  
E-mail. ansqudtjs12@hanmail.net

